



2000년대 결핵

세계결핵관리

이은규 역/결핵연구원 기술지원과



세계결핵총회 개회식 장면

세계 결핵 관리를 위한 세계 보건기구(WHO)의 결의

발표자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의 Huching-Li 박사

세계보건기구는 단일 감염 병원체로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유발케하는 결핵에 대해 전세계적인 재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이미 결핵에 감염되어 있고 매년 8백만명의 신환자가 발생하며, 3백만명이 죽어가고 있다. 결핵은 전세계적인 중요한 공중보건문제이며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전염성질환으로 인해 주로 증가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하에 세계보건기구는 서기 2000년까지 현존하는 도말양성환자의 70%를 발견하고 발견된 도말양성환자의 85%를 치유하겠다는 전세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는

첫째, 기존 결핵관리기술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1992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미국 메릴랜드 주 베데스다에서 개최된 1992년 세계결핵총회(1992 WORLD CONGRESS ON TUBERCULOSIS)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의 자료를 수집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둘째. 서비스 전달이나 프로그램(사업) 관리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진단기술이나 치료기술 및 예방기술들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세째. 모든 관련 단체들의 전세계적인 연합체 설립이 요구된다.

금년초 필요한 조직구조는 이미 설립되었으며 외부의 기여를 위해서 개방되어 있다.

WHO의 다른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반대중들의 인식을 포함하여 문제가 크다는 것이 인식되고 사회·경제적 영향이 완전히 이해되

어 국가적으로 질병관리에 노력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인력 그리고 자금)이 국가의 지원이나 외부의 지원이 있어야만이 국가적 발의(National Initiatives)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계획은 세가지 주요 사업분야 즉, 국가적 프로그램 지원, 운영연구(Operational Research) 그리고 연구 및 개발분야를 추구할 것이며, 이같은 사업분야는 국가적 발의를 장·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국가결핵관리 프로그램을 촉진, 유지, 강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결핵의 세계적인 영향

발표자 국제항결핵연맹(IUATLD)의 Donald A. Enarson 박사

결핵은 세상에서 커다란 재앙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이환율이 극에 달했을 때는 매년 한 지역에서 주민의 1% 이상이 결핵이 발병하였고 또 그들 중 많은 수가 결핵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그 당시 열대 지방의 국가들에서는 결핵이환율은 낮은 편이었으며 선진공업국가들조차 기록된 절정에는 달하지 않았다.

오늘날 지리학적으로 보아 최고로 높은 결핵 이환율이라도 당시 절정에 달했던 것 보다는 적어도 100배 정도는 낮은 편이나, 전세계적으로 과거 그어느때 보다 많은 환자가 상존하고 있다.

오늘날 결핵의 분포는 반드시 전과 똑 같지는 않지만 아메리카의 안데스 지역

(Andean Region), 아이티, 아프카니스탄 지역에서 네팔 지역에 이르는 아시아 북부지역(Upper Asia), 인도차이나반도,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제도들에서 가장 높은 이환율을 보이고 있다.

선진공업국가들의 경우 전체적인 결핵 이환율은 낮은 편이지만 점진적으로 고위험집단(high-risk groups)에 편중되어 증가하며, 주로 15-45세의 경제생산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빈곤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두가지 요소로 인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는 빈약한 관리수단으로 질병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인해 지역사회내 전염성

환자의 전염지역(Pool)을 확대시켰고 전염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내성균의 출현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둘째는 결핵감염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과 동시 발생됨으로 인해 몇몇 지역에서는 환자수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

이다.

이같은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결핵관리 프로그램이 잘 조직화되어 있는 개발도상국 젊은계층의 결핵이환율도 과거 60년 전 유럽의 동일한 연령계층의 결핵이환율보다는 약 100배 정도는 낮은 편이다.

미국의 여성, 아동 그리고 소수민족의 결핵

발표자 미국질병관리센터 Dr. Dixie E. Snider 박사

1953년부터 1984년까지 미국내 보고된 결핵환자수는 1953년 84,304명에서 1984년에 22,255명으로 상당한 감소를 보였으나 1984년이후 18%가 증가하였다.

1985년에서부터 1991년까지는 비히스페닉계 미국인(Non-hispanic whites) 중의 환자수는 9%, 미국원주민에 있어서는 13%가 감소된 반면 흑인에 있어서는 26%, 아시아 및 태평양제도인의 경우 32% 그리고 히스페닉(Hispanics)에 있어서는 72%나 증가되었다. 동기간동안 65세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환자수의 증가를 보였다.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계층은 52%로 25~44세를 연령층이었지만 0~4세의 연령층에서도 28%, 5~14세의 연령층에서도 39%나 증가하였다.

남여비교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숫자에 있어서는 큰 증가를 보였으며(남 +2,573명 : 여 +1,510명) 비율에 있어서는 여자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남 20% : 여 18%).

1986년부터 1991년간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The foreign-born)중에 보고된 환자수는 4,925명에서 6,982명으로 42%나 증가하였다.

아시아인, 아동 및 여성에 있어 증가요인은 이민(Immigration)이 주된 이유인 것 같고, 흑인이나 남성 그리고 25~44세 연령층에 있어서는 증가요인은 비교적 다른요인에 기인된 것 같다.

물론 후자군(흑인, 남성, 25~44세 연령층)에 있어서는 가장 큰 증가요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만연이겠지만 이에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병원, 외래클리닉, 교도소 및 몇몇 기관에서의 최근 결핵발생이 증가되고 있는데는 확실히 HIV 감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결핵발생의 대부분은 다제약제내성 결핵균주에 의한 발생이며 이같이 결핵환자수나 다제약제내성환자의 비율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결핵관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보건의료체제에 있어 HIV 및 결핵

발표자 · WHO 본부 AIDS 프로그램 사업개발 및 지원부장 Dr. Gary Slutkin 박사

전세계적으로 1천만명~1천2백만명의 성인이 HIV에 감염되었으며, 1백50만명~2백만명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로 발병되었다.

HIV 감염 및 AIDS의 엄청난 증가는 지난 6개월동안에만도 1백만명의 새로운 HIV 감염자가 발생했고, 향후 나머지 8개월동안 최고 1천2백만명~1천8백만명까지 AIDS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IV 전파 및 환자의 75%이상이 결핵감염이 만연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결과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결핵환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HIV 및 HIV와 관련된 결핵에 의한 보건의료시스템에의 영향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의 몇몇 도시의 경우 병원병상수의 60~80%가 HIV 관련질환으로 인해 이미 점유되었으며, 그들 환자들의 약 50%가 결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잠비아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HIV 관련환자일수(HIV-related patient days) 및 비용의 60~70%를 결핵이 차지하고 있다.

HIV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집중된 노력을 가속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첫째는 이용가능한 항결핵제이고 둘째는 현결핵환자에게 약품을 공급하는 의료서비스의 개선이다.

“HIV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집중된 노력을 가속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용가능한 항결핵제 사용과 현결핵환자에게 약품을 공급하는 의료서비스의 개선이다.”

AIDS 환자 그리고 AIDS/결핵환자에 대한 모든 치료 및 치료약제를 제공하는 방법(물론 결핵환자에게도 혜택을 주어야겠지만)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자료 및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은 자원수준에 따라 약제의 선택이나 주문 그리고 지역사회단위의 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두가지 사업지침은 국가단위에서의 도입이나 활용을 위해 개발하였으며 이미 몇몇 지역에서 이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첫번째 전시기획도 실시하였다. 다음 단계로서 운영연구 및 평가를 실시한 다음 보다 많은 나라들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같은 사업시행국가를 지원하는 지속적인 노력에 부가해서 현재 개발도상국에서의 이중감염자(HIV/결핵)에 대한 예방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시험하는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